홀로스 평생교육원
심층 의식으로 부터 깊은 지혜를 이끌어 내는 통찰력게임

• 발행 : 이원규 • 편집: 이한솔, 이혜정
• 주소 : 서울 사무실 /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68 (청룡동) 혜남빌딩 4층
함양 연수원 /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785번지
• Tel : 02-747-2261 • Fax : 02-747-3642 • E-mail : lhj40626@naver.com

통찰력게임 소식지

2017년 7월 (제3호)

권두언 (卷頭言)

의지를 내기

문제를 만나면
'어찌해야하나'라는 걱정과 함께
위축되기 마련,
그때 통찰력은
결코 사용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통찰은,
의식이 어떤 방향을 향할 때
심층의 경험 데이터가
그 방향으로 재정렬되며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의식의 방향이 설정되고
비로소 통찰력은
사용되는 것이니,
강한 의지가
가슴을 안정시킬 때,
지성은 번개같이 움직인다.

이원규 두손

〈목차〉

다가오는 강좌 소개 / 2 p
딜러, 마스터 동정(動靜) / 3 p
통찰력게임 참가자 후기 / 4~5 p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섬광처럼 내리꽂히는 통찰력> / 6 p
통찰노트, <상대방 말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7 p
6월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이야기 / 8~10 p

다가오는 강좌 소개



● 7월, 제 4차 통찰력여행, 함께해요!

<통찰력여행>은 신청자 분들과 함께(선착순 3명) 통찰력 미니게임을 진행합니다. 하루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삶의 이슈를 함께 나누고, 스스로에게서 나온 영감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 일시: 2017년 7월 23일(일) 오후 2시 ~ 오후 6시
· 장소: 서울 (장소는 추후 공지)
더 알아보기) https://goo.gl/oKW8rL



● 제 12차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

통찰력게임 마스터란? 통찰력게임 시범게임(3시간)과 워크숍(이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말합니다. 숙련된 마스터는 심사를 거쳐 워크숍과 딜러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일시: 2017년 7월 7일(금) 오후 2시 ~ 7월 9일(일) 오후 3시
· 장소: 홀로스 함양 연수원
· 참가자격: 자기변형게임 및 통찰력게임 딜러
PC버전) https://goo.gl/5HfTZ6
모바일버전) https://goo.gl/mtIDRv

● 제 2차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

<통찰력 미니게임>은 통찰력게임의 퀵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것이며, 3~4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일시: 2017년 7월 22일(토) 오후 1시 ~ 6시
· 장소: 서울 강의장
PC버전) https://goo.gl/oqtc7f
모바일버전) https://goo.gl/zBl9tY



● 제 2차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을 받은 분들과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딜러교육 이후 통찰력게임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임에 참여한 분들께서 함께 모여 서로에게 통찰력게임을 안내도 하고 참여도 하며 실전 연습을 하는 모임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 일시: 2017년 7월 23일(일) 오후 12시 ~ 6시
· 장소: 서울 강의장
PC버전) https://goo.gl/Cfu54z
모바일버전) https://goo.gl/3UXYoX



통찰력게임 동정(動靜)



● 제 12차 통찰력게임 딜러 교육이 있었습니다.

진지한 열정이 가득했던 시간!
2017년 6월 10일 제 12차 통찰력게임 딜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변경게임과 통찰력게임 교육을 받으셨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진지한 태도로 배우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제 12차 통찰력게임 마스터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통찰력게임 딜러분들은 신청해주세요!

마스터교육 신청하기 PC버전) https://goo.gl/5HfTZ6
모바일버전) https://goo.gl/mtIDRv

● 6월, 제 3차 통찰력 여행에 다녀왔습니다.



2017년 6월 11일, 통찰력게임 마스터 자형님의 안내로 제 3차 통찰력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롯히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선택에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통찰력게임을 통해 새롭게 느끼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산들님. 산들님의 생생한 후기가 궁금하신 분은 ~쪽을 확인해 주세요!
7월 23일 4차 통찰력여행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신청해 주세요 ^^

신청 바로가기) https://goo.gl/oKW8rL

● 통찰력게임 딜러분들과 함께했던 첫 번째 모임!



"계속 웃느라 배가 너무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ㅎㅎ"
2017년 6월 11일 시유님, 해안님, 선재님, 선호님과 함께 첫 번째 통찰력게임 딜러모임을 가졌습니다. 리뉴얼 된 통찰력게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며 서로에게 안내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통찰력게임 딜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딜러모임 신청하기 PC버전) https://goo.gl/Cfu54z
모바일버전) https://goo.gl/3UXYoX

● 제 16차 통찰력게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4, 25일 제 16차 통찰력게임 워크숍이 함양 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기변형게임에 참여 하셨던 소연님, 선호님, 시몬님과 함께 했습니다. 2017년 8월 26일 제17차 통찰력게임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8월 워크샵 신청하기 PC버전) https://goo.gl/X8v9pj
모바일버전) https://goo.gl/Qg4IVT

6월 통찰력 여행 후기

통찰력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된 '산들'님,
통찰력 미니게임을 참여한 소감이 어떠세요?



통찰력게임 주제는 무엇인가요?

통찰력게임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제 주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입니다. 자세하게는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통찰력게임을 통해 살펴보고,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면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싶어 6월 통찰력 여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통찰력게임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나눠주세요.

우선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찰력게임의 일부만 경험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안의 감정을 느껴보았고, 알지만 반복하며 회피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같이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를 가져와 해결하고 싶었지만 내면의 패턴과 감정들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여졌습니다. 눈물과 공감, 수용, 인정과 편안함, 저항과 긴장 등 제 안에 담겨져 있던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전과 흥분들을 느꼈던 오늘의 순간과 기록된 메모들을 집에 돌아가서 하나씩 되새겨 보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작은 발견과 변화의 지점들이, 제가 막막하고 두려워 보호의 영역에 머무르려고 했던 곳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오래, 천천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통찰력 미니게임을 통해 나 자신이 다져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일상에서붙의 진짜 변화와 통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

우선 통찰력게임 마스터 자형님의 안내와 경청 덕분에 돌아가는 마음속에서 저의 주제가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생명력, 감정들로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느껴서 정말 기뻐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통찰력게임 워크숍 후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중국 아동 여성기금 대표 / 시몬님



통찰력게임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의 통찰력게임 주제는 <나는 개인을 넘어선 영성과 융화되고 연결되어서 나를 찾는 환자들도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입니다.

통찰력게임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나눠주세요.

저의 주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게임을 통해 받았던 '신뢰' 카드였습니다. '신뢰' 카드를 받았을 때, 제가 예전에 히말라야에서 여행 하고 수련하던 중에 경험한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신뢰, 즉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그때의 신뢰감을 떠올려서 그 느낌을 온몸에 가득 채운 후 주먹을 꽉 쥐었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며 모든 잠들었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주제를 이루는 데 장애가 나타나면 이 신뢰의 에너지를 쓰라고 하신 안내자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 언어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에 사고가 한정된 틀 속에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카드가 제시해준 대로, 매일 밤 일정하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시간과 통찰, 관찰을 통해야만 내 기존의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퀄리티의, 언어와 이미지를 벗어난, 더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수행 방편으로 그동안 제가 해오던 호흡 수련과, 들이마실때 상대의 아픔을 함께 흡수하고 내뿜을 때 사랑의 느낌을 내뿜는 통렌(Tong Ren) 명상, 감사일기, 유머와 여유, 신뢰가 주는 파워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매일의 수행이 나를 더욱 깊은 차원의 영성과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통찰력게임을 안내해 주신 선생님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며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선호님 소연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3)

게랄드 트라우피터



섬광처럼 내리꽂히는 통찰력 (insight)

게랄드 트라우피터 지음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아래 예시를 보면 데익스터호이스가 이사갈 집을 결정하는 데에는 채 2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어떠한 행동을 결정할 때 이런 '직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뇌가 이미 정확하게 관찰하고 생각한 바를 오히려 의식적인 사고가 왜곡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무의식적인 사고' 즉 '직관'을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닌 내 내면의 느낌 즉 직관에 의식적으로 귀 귀울여야합니다. 그것이 Real Massage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서 안다고 해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각이 아닌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90초 만에 24만 유로를 쓰다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덜란드에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이 있었는데, 마침 데익스터호이스의 실험과 잘 맞아떨어졌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동물원 바로 옆에 위치한 집으로 열 명도 넘는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부동산 중개인이 미리 신용 상태를 확인해 둔 사람들이었다.

제시된 가격은 24만 유로였다. 데익스터호이스는 재빨리 방들을 둘러보았다. 아직 화장실도 채 보지 못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사겠습니다!" 집에 들어선 지 겨우 1~2분 정도가 흘렀을까. 데익스터호이스의 귓속에는 잔뜩 긴장한 신체의 급박한 맥박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발코니에 서 있었다. 동물원에서는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확신을 내리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었다. 중개인의 허락이 떨어졌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고르던 어느 여름날 아침을 회상하며 자랑스럽게 말을 잇는다. "그 후 나는 그때의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데익스터호이스는 교수가 되었고 그 90초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왜 결국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만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실제로 무의식적인 사고 능력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다양한 정보를 처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무척 좋아했는데, 마침 부엌은 널찍했고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공간은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나뉘어 있었다. 방들은 모두 밝았고 집의 기본적인 상태도 좋았다. 데익스터호이스는 말한다. "직관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같은 경험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축구 팬들과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토요일 오후에는 대형 가구매장 이케아의 주차장과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고급 백화점으로 꼽히는 비엔코르프의 가정용품 코너를 돌아다녔다. 이 모든 일들은 연구를 위한 현장 조사였고 그 결과물들은 점점 더 그의 가설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현장 조사의 결과는 직관이 상품 구매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책, 통찰력(insight) p.22~25 中

통찰 노트(Insight Note): 세상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상대방 말의 '진짜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에는 참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간 통찰력게임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가끔 어떤 고민들은 무언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게 주제입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해결하고 싶은 주제가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딱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의미'는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창조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순간 새로운 대답이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참가자의 표정과 감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도 무언가 울컥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저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돈 자체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통찰력게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나누다보면, 자신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그 '새로운 의미, 즉 창조성'과 하나로 연결되어 표면에서 떠돌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 숨어져 있던 '진짜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편집자 이한솔)

상대방의 '말'보다 '좋은 의도'를 느껴라!
서로의 좋은 의도가 통할 때 비로소 소통의 길이 열린다. 자신은 '의도'로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에 대해선 '좋은 의도'를 알아주지 않고, 표현된 말과 행동으로만 평가하면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알아주는가?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먼저 알아주면 상대방은 극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소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설득하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먼저 알아주고 난 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의 순서다.**

말의 한계를 인정하라!
소통에 있어서 순서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 '말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측면은 말하지 않는 게 된다.** 반대 측면에서 보면 오목하기 때문이다. 말은 언제나 표현되는 순간 틀린 말이 된다. 말의 이런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소통의 비결이다. **내가 한 말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틀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상대방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선택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한 가지 측면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언제나 진실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은 언제든지 반박 받을 수 있고, 오해 받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내 말은 언제든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의 비결이다.**

(출처: 김종명의 샐러리맨 코칭 스쿨 https://goo.gl/3vfC6M)

통찰력게임 활동 모습 (3)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통찰력게임 딜러모임, 그 첫 번째 이야기

"통찰력게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줄 수 있는 도구에요!"



통찰력게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통찰력 게임을 더 깊게 알아가고자 하는 통찰력게임 딜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2017년 6월부터 통찰력 딜러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통찰력게임 딜러분들을 직접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데요, 딜러모임에 참여한 모든 딜러분들께서는 통찰력 미니게임을 안내하고,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또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딜러 교육 이후에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많은 딜러분들께서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찰력게임 딜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통찰력게임 딜러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의 질문을 풀어가고 통찰력게임 딜러분들의 삶과 고민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또한 통찰력게임 안내자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통찰력 딜러모임의 생생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편집자 주)



시유님

제가 아까 한솔님께서 해안님을 안내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 통찰력게임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카드를 보고 느낌이 오는 것보다 카드를 보면서 느낌들을 이야기하실 때 거기서 저에게 와 닿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통찰력게임이 단순히 내가 안내하고 내가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통찰력게임 딜러분들과 함께 모여 서로에게 안내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



선재님

저는 통찰력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제 자신에 대해 훨씬 편해진 것이 잘 느껴졌어요. 제가 안내자가 되어 시유님을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저 스스로 자기점검을 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시유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자꾸 올라왔어요. 이것은 완전히 시유님에게 주의가 가지 못해서 시유님의 지금 느낌의 변화를 섬세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가 제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꾸만 저를 점검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내가 잘 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준이 올라왔던 것이 상대의 느낌에 공감하는 것을 방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과는 또다른 가족같은 편안한 분위기여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



해안님

제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있어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는 느린 말투와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흥분도 잘 하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며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질문을 하니 툭 떠오르는게 있어요. '나는 상처받은 만큼 사나운 짐승이다.'에요. 그래서 통찰력게임을 안내를 하거나 참가를 하는 도중에 포악한 짐승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도 통찰력게임을 하는 도중에 제가 너무 열을 내고 안내자분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의 어떤 생각에 갇혀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 통찰력게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찰력게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에 공감을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모여 함께 안내하고 참여도 하는 시간을 가지니 즐거웠습니다 ^^



'안'과 '밖'을 동시에 보다

통찰력게임 딜러 / 선호님

통찰력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내'가 형성되면서 쌓였던 프레임 바깥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를 풀기위해 통찰력 게임에 참가하는 것과 달리 안내자의 역할은 어려우면서 또 다른 통찰을 선사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 안내자 역할에서 저는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게임을 안내하면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은 안내자로서 생각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주제를 정하고 어울리기 카드를 참가자가 고르는데 왠지 이미 익숙한 생각으로 뽑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참가자를 향해 '저렇게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아는 얘기만 늘어놓다가 결국 통찰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마음속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참가자가 익숙한 생각보다는 순간적인 느낌으로 참여하도록 끌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자가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가려는 것을 참가자는 귀신같이 알아채곤 저항을 하더군요.** 이때라도 의도를 거두고 참가자의 입장을 헤아렸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안내자 역할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가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가자의 미묘한 변화를 살피면서 동시에 안내자인 저 자신의 마음도 살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통찰력 게임 안내를 많이 해봐야겠구나!'입니다. 특히, **통찰력게임 딜러모임에서 안내 역할을 해보는 것은 안전한 분위기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안내하다가 오류를 범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란 실패의 자리에 멈출 때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성찰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경험이 소중하게 와 닿았습니다. (끝)



"궁금하지 않으세요?"

- 리뉴얼된 통찰력 미니게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며 서로에게 통찰력 미니게임도 안내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앞으로 더 많은 딜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 2017년 7월 23일 (토) 제 2차 통찰력게임 딜러모임이 열릴 예정입니다. 통찰력 미니게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통찰력게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함께 배우고 싶으신 딜러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을 이수한 분들 대상)

모임 참여하기 PC버전) https://goo.gl/Cfu54z / 모바일버전) https://goo.gl/3UXYoX